

“전남 소방드론 1대 불과, 시·군 소방서 전담인력은 전무”

“‘블루 이코노미’ 핵심 드론산업 불구 현장 활용도는 미미”

나광국 도의원 “드론 상시 운용체계 구축·적극 활용해야”

전남도가 새로운 미래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로 드론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안전 건설소방위원회, 무안)은 25일 열린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화재·구조구급 현장, 조난·실종자 수색 등에 활

용도가 높은 드론(무인비행장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소방드론은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가 장

착돼 연소 확대 감시와 옥상 인명 수색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먼저 도착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현재 전남 소방본부에서 임무용으로 투입돼 운용 중인 드론은 단 1대(교육용 4대)에 불과하다.

또한 비행시간이 30분, 비행거리는 7km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

안했을 때 1대의 드론으로 전남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전문 보직도 없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현재 전남소방본부 드론 운용 가능인력은 특수구조대 소속 13명에 불과하며, 시·군 소방서의 드론 전담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나광국 의원은 “드론 도입 확대·전담인력 구성으로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 재난 발생 시 드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철 시작

해남 절임배추 인기 ‘상종가’

연달은 태풍으로 김장 늦어지고 예약주문 폭증



담그는 적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남미소 입점 절임배추 농가들도 해남배추 100% 의무사용 실천을 결의하고 지난해보다 10% 정도 상승한 선에서 절임배추 가격을 동결했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은 올해 1941ha 면적에서 가을배추를 생산, 30% 가량을 절임배추로 가공,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달은 태풍으로 가을 배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만큼 겨울배추(2372ha)를 조기 출하할 예정으로 김장 물량을 충당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은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 등 개별농가를 비롯해 회원김치가공공장, 중소절임업체 등 1000여 곳에서 3만4000여 톤의 절임배추를 생산, 530여 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서명환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배추 주산지 전남 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종가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경우 11월 초부터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주문량이 6만9200여 박스(20kg 기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500여 박스에 비해 2만 박스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연달은 태풍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예약 주문이 크게 늘어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풍피해로 배추 생육이 늦어져 배추가 충분히 자란 11월15일 이후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속이 꽉찬 해남배추로 김장을



전남도, 오늘 베트남에 통상사무소 개소

“아세안 우호교류 확대, 신규 수출시장 개척”

전남도는 아세안 신규시장 개척과 관광객 유치에 27일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동남아통상사무소를 개소,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역대상을 대상으로 부상한 아세안과의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정부의 산업방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베트남에 동남아통상사무소 개소를 확정했다.

이어 인력 파견 이후 11월 초 현지 설립허가를 받았다.

27일 개소식에는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조옥현 전남도의원, 바리아붕따우시, 깐터시, 동나이시 등 우호도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베트남 진출 전남 기업인, 호남항우회 등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개소식 전에는 호찌민 2대 방송사 중 하나인 HTV와 현지 인타뷰를 갖고 전남 소개와 함께 양 지역 간 우호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일일 계획이다.

전남도 동남아통상사무소는 앞으로 인도·동남아·중동지역과의 교류 거점으로서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 수집, 외자 유치와 기업체 동향 관리를 비롯해 전남 지역 기업의 무역·투자·수출 지원 및 문화관광 홍보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은 1997년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시, 2012년 깐터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교류를 해오고 있고, 최근 케이팝과 축구 등 분야에서 민간교류도 활발하다”며 “동남아사무소는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아세안,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교류 거점역할을 특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보기에도 군침도는 순천김장김치 26일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9 순천 사랑썩 김장나눔 대축제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손놀림으로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이날 김장축제에는 지역 내 107개 기관과 단체의 자원봉사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39톤의 배추가 사용됐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